10.15686/fkl.2025..64.228 OPEN ACCESS

기억되지 않는 삶들, 다시 쓰는 1980년대
-신경숙 초기작에 나타나는 '다시 쓰기'의 양상을 중심으로

임희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목차

1 서론
2 역사가 되지 못한 삶의 반복적 재현-'이숙' 다시 쓰기
3 「외딴방」 새로 쓰기와 재구성되는 1980년대
-「외딴방」에서 『외딴방』으로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신경숙 문학이 '내면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1990년대 한국문학의 대표작으로 독해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동안 '1990년대적인 것'이라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신경숙의 초기 문제의식을 면밀히 살피고자 한다. 본고는 신경숙의 등단작부터 1990년대 중반의 작품에 나타난 문제의식들이 '다시 쓰기'의 방식을 통해 문학이 '1980년대'라는 시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한 화두로 연결 및 확장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다시 쓰기의 관점에서 볼 때, 신경숙의 초기 문학세계는 1990년대 신경숙의 문학이 비단 '1990년대적인 것'만으로는 구성될 수 없음을, 다시 말해 그동안 1990년대적인 것으로 일컬어졌던 신경숙 문학의 특징들이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서 치열하게 길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경숙 초기작은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문학의 의미를 양방향에서 풍부하게 성찰하도록 하는 독특한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었다.

국문핵심어: 신경숙, 1980년대, 1990년대, 다시 쓰기, 기억, 『겨울 우화』, 『풍금이 있던 자리』, 『외딴방』

1 서론

1990년대 초반의 한국 문단이 신경숙 문학에서 발견한 1990년대 한국문학의 새로움이란 당대 문단의 주요 관심사였던 '내면성'의 문제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었다.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아래 놓이게 된 1990년대 문학의 문학주의적 가치를 변호하기 위한 '알리바이'로 내면성이 강조되면서, 당대의 평론가들은 이를 증명해 주는 모범사례로 신경숙의 문학을 발견한다.[1] 물론 '창작

1 배하은, 「만들어진 내면성: 김영현과 장정일의 소설을 통해 본 1990년대 초 문학의 내면성 구성과 전복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0집, 한국현대문학회, 2016, 550-551쪽. 이 밖에도 한국 문단이 여성 문학에서 1990년대 문학의 '새로움'을 찾으며 신경숙을 1990년대 새로운 문학의 기수로 상징화하는 과정을 살피는 연구 성과로는 다음의 글들을

과비평’ 진영은 신경숙 문학이 “개인 차원의 진정한 변화가 수반되는 ‘시대의 증언’”[2]을 통해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새로운 리얼리즘의 가능성”[3]을 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지만, 신경숙 문학에 대한 평가는 무엇보다도 ‘이념’과 대비되는 ‘개인’의 내면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1980년대와 구분되는 1990년대 문학의 새로운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귀결되었다.[4] 소설집 『풍금이 있던 자리』의 의의를 찾는 과정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문학의 변화를 개인의 내면을 촉발하게 된 ‘고독함’의 강조로 보고 이를 가장 잘 형상화한 작가로 신경숙을 꼽는 류보선의 글과, 「풍금이 있던 자리」와 「배드민턴 치는 여자」와 같은 1990년대의 신경숙 소설에서 사회적 현실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 주체와 내면의 묘사를 발견하는 황종연의 글은 신경숙의 문학에서 개인, 내면, 고독함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1990년대 문학의 ‘새로움’을 발굴하려는 당대 문단의 풍경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 **『풍금이 있던 자리』는, 단순화시키자면 현실적 상황과는 먼 거리를 둔 고독한 개인의 내면고백이다.** (…) 이처럼 『풍금이 있던 자리』에 수록된 소설들은 이전의 『겨울 우화』에서 보이던 타인과의 동질감 또는 갈등이 사라지고 세계와 관계를 단절한 개인의 내면을 다루고 있다. 『풍금이 있던 자리』에 설정된 주인공들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부모와의 관계마저 끊은 고독한 개인이다. 그리고 작품의 분위기 또한 고독함을

참조할 수 있다. 서영인, 「1990년대 문학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대중서사연구』 제46호, 대중서사학회, 2018; 최가은, 「‘90년대’와 ‘여성문학특집’-『문학동네』 1995년 여성문학특집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75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21; 한경희, 「비극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는 조건-1990년대 여성문학의 제도 문학 편입 맥락과 그 과정」, 『현대소설연구』 제8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한경희, 「여성과 경험의 괴리-1990년대 문학장에서 ‘여성적 글쓰기’ 비평 담론의 형성 및 전개」, 『구보학보』 제35호, 구보학회, 2023.

2 백낙청, 「『외딴 방』이 묻는 것과 이룬 것」, 『창작과비평』 1997년 가을호, 창작과비평사, 240쪽.

3 최원식, 「제11회 만해문학상 발표」, 『창작과비평』 1996년 겨울호, 창작과비평사, 408쪽.

4 한경희, 앞의 글, 2021, 52쪽.

기본정서로 하고 있다. 신경숙의 미덕으로 평가되는 독특한 문체라든가 인간 내면을 아로새기는 섬세한 무늬라든가 하는 것은 모두 이 고독에서 촉발된 것이다. 이 고독감은 다분히 현실적인 의미를 지닌다. 신경숙의 소설에 주어진 압도적인 찬사는 이와 연관된다. **다시 말해 동시대인들이 지니는 가장 절실한 감정, 즉 고독감을 신경숙은 가장 섬세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열풍과도 같은 80년대의 상황이 끝나자 모여서 '우리'가 되었던 사람들의 "뿔뿔이 흩어"(265면)지는 모습, 그때 다가온 친구의 죽음, 소통 불가능한 언어로 애절하게 누군가를 찾는 이국의 목소리, 그로 인해 증폭되는 고독감, 이런 모습을 신경숙의 소설은 담고 있는 것이다. **바로 80년대가 끝나고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커다랗게 부각되기 시작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경숙의 소설에 그토록 수많은 찬사가 주어진 이유일 것이며, 그 찬사는 그녀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몫이기도 할 터이다.[5]

개인의 경험적 현실을 계급·사회·민족·국가 등과 같은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삶의 범주 속에서 인식하고 재현하는 것을 지향하는 전체적 서사의 충동은 그녀의 작품 어디에서도 느껴지지 않는다. (…) 신경숙은 인물의 경험적 현실을 추상적으로 파악된 사회적 현실의 맥락 속에 정위하는 대신에 **개인의 내면적 경험의 형태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면에 부유하는 감각적 인상과 미세한 심리적 파동에 즉물적인 묘사의 태도를 취한다.**[6]

이후 개인과 내면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학의 예술성을 강조하는 문학주의가 1990년대 한국 문단의 중심 헤게모니로 자리잡으며 신경숙은 1990년대 한

5 류보선, 「그리움과 끈끈한 생명력의 넓이와 깊이」, 『창작과비평』 1993년 여름호, 창작과비평사, 388-390쪽, 강조는 인용자.

6 황종연, 「개인 주체로의 방법적 귀환」, 『문학과사회』 1993년 겨울호, 문학과지성사, 1317쪽, 강조는 인용자.

국의 중요 작가의 입지를 굳히게 된다.[7] 특히 1994년 창간 이후 1990년대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문학잡지로 자리 잡은 『문학동네』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한국문학이 내세우고자 했던 '문학주의'의 핵심에 『문학동네』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8] 개인의 내면을 신경숙 작품세계의 핵심 키워드로 파악하고, 이를 내세워 신경숙을 1990년대 한국문학의 중심 기수로 정립하려 했던 「문학동네」의 양상은 신경숙이 개인과 내면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1990년대 문학의 대표 작가가 되는 과정을 생생히 드러내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9] 『문학동네』가 역사나 이념의 문제에서 벗어나 "고독한 사인성(私人性)의 세계 속에 남겨진 개인들의 삶"[10]에 집중하는 것으로 1990년대 30대 여성 작가들의 작품적 특징을 파악하며 신경숙의 장편소설 『깊은 슬픔』과 『외딴방』을 가져오거나, 『외딴방』을 "내면탐구 문학의 새 가능성"[11]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단적인 예다. 나아가 1990년대의 끝자락에서 1990년대의 한국문학의 성과를 갈무리하며 신경숙의 작품을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자기를 고백하는 것, 고립된 주관성의 정서"[12]를 드러내는 글쓰기로 평가하는 서영채의 글이나,[13] 신경숙 문학의 중심 주제를 "개인의 내면에

---

7 배하은, 앞의 글, 같은 쪽.

8 이에 대해서는 조연정, 「'문학주의'의 자기동일성-1990년대 『문학동네』의 비평 담론」, 『상허학보』 제53권, 상허학회, 2018. 참조.

9 해당 내용은 최가은, 앞의 글 참조. 최가은은 『문학동네』의 1995년 여성문학특집이 '여성적 특질'로 호명한 '일상', '개인', '내면' 등의 키워드가 '90년대적인 것'으로 사후 기획되는 과정을 살피며, 신경숙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 작가로 기획된 작가 중 한 명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10 박혜경, 「사인화(私人化)된 세계 속에서 여성의 자기 정체성 찾기」, 『문학동네』 1995년 가을호, 문학동네, 24쪽.

11 박해현, 「우물 속의 하얀 새」, 『문학동네』 1996년 봄호, 문학동네, 105쪽.

12 서영채, 「냉소주의, 죽음, 매저키즘: 90년대 소설에 대한 한 성찰-신경숙, 윤대녕, 장정일, 은희경의 소설을 중심으로」, 『문학동네』 1999년 겨울호, 문학동네, 414쪽.

13 한편 최가은은 『외딴방』을 '진정성'이라는 키워드로 바라보는 서영채의 비평 역시 90년대 여성문학의 '여성적 특질', 즉 젠더적 특질로 지적되었던 '사인성'의 문제를 90년대 소설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경숙 소설을 그 안에 새롭게 재배치하는 작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지적한다. (최가은, 앞의 글, 81-82쪽.)

대한 관심"[14]으로 평가하는 황종연의 글은 신경숙 문학을 '내면성'의 문제로 파악하는 관점이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유효했음을 보여준다.[15]

그러나 개인과 내면이라는 키워드가 1980년대 문학과는 다른 1990년대 문학의 새로움을 부각하려는 논자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내세워졌음을 고려할 때, 해당 키워드를 통해 신경숙 초기작에서 '정치적 서사'에 대항하는 1990년대 문학의 새로움을 읽어내고자 했던 상황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살폈듯 신경숙의 『풍금이 있던 자리』가 1990년대 한국문학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조명된 덕분에, 신경숙의 초기작에 대한 당대 비평은 『풍금이 있던 자리』의 수록작 가운데서도 여성 개인의 내면을 강하게 드러낸다고 평가받는 작품들, 이를테면 「풍금이 있던 자리」나 「배드민턴 치는 여자」, 「해변의 의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16] 그리고 이러한 작품들에서 두드러지는 '개인'과 '내면'의 문제는 일찍이 신경숙이 『겨울 우화』에서 보여준 것으로 지적된 "동시대의 소설을 풍미한 정치적 서사에 대한 모종의 항의"[17]라는 문제의식

14 황종연, 「내향적 인간의 진실」, 『21세기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9, 543쪽.

15 『문학동네』를 중심으로 일상과 개인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신경숙을 포함한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 주목하고 여기서 1990년대 한국문학의 특징을 찾았던 당대 문단에 대한 지적은 졸고, 「1990년대 한국 후일담 문학과 '애도'의 의미」,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24, 81-82쪽에서도 간략하게 시도한 바 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단의 행보가 여성 후일담 문학의 성과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음을 지적하고 90년대 여성 후일담 문학의 성과와 의의를 살폈다면, 본고는 이러한 과정이 신경숙의 초기 문학세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상당한 한계를 가져왔음을 지적하고 신경숙의 초기 문학을 새로이 재검토하고자 한다.

16 김윤식·신경숙, 「不在를 견디는 독특한 문체와 미학-김윤식·신경숙 대담」, 『문예중앙』 1993년 봄호, 중앙일보사; 류보선, 앞의 글; 이광호, 「문학의 복권과 새로운 화법」, 『월간 문화예술』 제168호, 1993; 서영채, 「단편소설과 상품미학」, 『상상』 1993년 가을호, 도서출판 살림; 황종연, 앞의 글, 1993 등.

17 "80년대에 이숙이라는 인물이 소설에 등장했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욕망이 깊은 공감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얼마간 음미할 가치가 있는 사실이다. 그녀가 구현하고 있는 친밀성에 대한 갈망은 80년대 주류 리얼리즘 소설에서는 자리를 얻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 「밤길」은 그래서 **동시대의 소설을 풍미한 정치적 서사에 대한 모종의 항의가 아닌가** 하는 추측마저 불러일으킨다." (황종연, 「현대적 실존과의 접촉」, 『비루한 것의 카니발』, 문학동네, 2001, 140쪽, 강조는 인용자.)

을 '1990년대식'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1980년대의 신경숙이 '정치적 서사에 대한 항의'를 이미 "선구적"[18]으로 시도하였고, 이것이 1990년대에 이르러 자연스럽게 정치적 서사와 대립하는 '문학주의적 서사'로 매끈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1990년대 초반의 신경숙의 소설들이 내보이는 '개인의 내면'이란 거대서사의 반대편에 서 있는 1990년대의 "일상성의 영역" 뿐만 아니라,[19] 『겨울 우화』에서 일찍이 펼쳐 보인 1980년대에 대한 기억을 반복적으로 재생하고 다시 쓰는 과정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20]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삼아, 본 연구는 『풍금이 있던 자리』의 몇몇 수록작이나 『외딴방』에 대한 개별적인 작품론을 중심으로 신경숙의 초기작을 이해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겨울 우화』부터 『풍금이 있던 자리』를 거쳐 장편소설 『외딴방』으로 나아가는 과정까지를 신경숙의 초기 작품세계로 이해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의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1980년대가 문학을 통

18 "『강물이 될 때까지』에 실린 소설들은 모두 인간 해방 서사가 아직 신뢰를 누리고 있던 시기에 씌어졌지만 신경숙은 일상적 삶의 탐구가 소설의 중요한 과제임을 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소설의 예술적 순화와 세련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90년대 소설의 판도 속에서 보면 신경숙의 80년대 작품들은 선구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위의 글, 142쪽. 『강물이 될 때까지』는 신경숙의 『겨울 우화』의 1998년 재판본이다.)

19 황종연은 신경숙의 90년대 문학에 대한 좌담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신경숙이 역사철학이나 거대서사와 구별해서 소설의 영역이라고 생각한 것은 말하자면 〈일상성의 영역〉이었다는 것이죠." (황종연 외, 「90년대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민음사, 1999, 39쪽.)

20 이와 연관하여 이혜령, 「포스트 80년대, 비범한 날들의 기억-신경숙과 김인숙 소설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제39호, 반교어문학회, 2015.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혜령은 386세대의 주류적 회고와는 다른 방식으로 80년대를 기억하는 386세대 여성 작가인 김인숙과 신경숙의 작품에 주목한다. 그는 신경숙의 『겨울 우화』부터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에 이르는 동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여성 형상을 386세대가 "잊고 있었던 타자의 얼굴"(같은 글, 522쪽.)로 분석하며, 이를 '포스트 80년대'의 시대가 잊어가는 1980년대의 기억, 즉 "국가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죽은 자들을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삶에 관련시키려 노력했던 1980년대에 대한 기억"(같은 글, 516쪽.)을 소환하는 상징으로 파악한다.

해 공적 역사가 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인식한 작가의 문제의식이 '다시 쓰기'를 통하여 확장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신경숙의 초기 문학세계를 새로이 독해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겨울 우화』와 『풍금이 있던 자리』에 걸쳐 '이숙'의 이야기가 반복 변주되는 양상과, 「외딴방」이 장편소설 『외딴방』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은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세대였던 '1963년생'이지만 변혁운동과는 무관한 삶과 죽음을 맞은 '이숙'이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겨울 우화』를 거쳐 『풍금이 있던 자리』에서 반복 변주되는 양상이다. 『겨울 우화』에 수록된 단편 「밤길」 뿐만 아니라 『풍금이 있던 자리』에 수록된 「직녀들」, 「멀리, 끝없는 길 위에」를 통해 1990년대에도 이숙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글쓰기는 "주어진 사회의 역사적 가능성에 참여하는 영웅적인 삶"[21]이 주로 주목받던 1980년대와 이를 역사화하는 당대 리얼리즘 문학의 방식을 성찰하는 행위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한편 앞에서 살폈듯이 '여성 개인의 내면성을 성찰한 작품'으로, 또는 '새로운 리얼리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며 신경숙의 초기작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던 장편소설 『외딴방』 역시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다시 분석해야 한다. 이때 장편소설 『외딴방』이 『겨울 우화』에 수록된 단편소설 「외딴방」을 고쳐 쓴 소설이라는 점을 다시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단편소설 「외딴방」이 장편소설 『외딴방』으로 새로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희재언니의 기억과 함께 당대 여성 노동자의 다양한 삶의 면모를 풍부하게 되살리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장편소설 『외딴방』 역시 위와 같은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놓여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고는 신경숙이 한국문학이 '1980년대'를 역사화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작가가 1980년대를 어떻게 재구성하고자 했는지를 주목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 문학과 1990년대 문학 양측 모두에 쉽게 포섭되지 않는 신경숙 초기작의 독특한 성취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21 황종연, 「현대적 실존과의 접촉」, 앞의 책, 141쪽.

지난했던 투쟁 과정을 회고하고 이에 대한 심경을 토로하는 운동권 출신 작가들의 ‘후일담 소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1980년대 중반, 신경숙은 이들보다 한발 먼저 등단작 「겨울 우화」를 통해 실패한 운동권 대학생의 삶에 주목한다. 일찌감치 변혁운동의 길에서 탈선한 ‘혁수’의 삶을 기억할 필요성을 상기하는 신경숙의 「겨울 우화」는 문학의 중심 초점이 변혁운동의 당위를 형상화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던 1980년대에서 “전혀 없었던 일”[22]로 치부되기 쉬운 실패와 좌절의 형상을 문학으로 형상화해야 할 필요성을 예견한다.

「겨울 우화」는 운동권에 몸담았던 ‘혁수’가 학교에서 제적된 뒤 이어지는 삶의 방황과 몰락의 과정을 그의 애인이었던 ‘명혜’의 시선에서 담담하게 포착한다. 학교를 떠난 혁수는 강원도 사북의 탄광촌과 포장마차 운영을 전전하던 끝에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수감된다. 운동에 가담한 ‘투사’로서 끝까지 남지도, 그렇다고 안락한 삶을 보내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혁수는 연속되는 불행을 겪으며 무기력과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명혜는 이처럼 무기력과 절망으로 점철된 혁수의 삶을 자신이 영원히 기억할 것을 다짐하며 일상 가운데서도 혁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이를 곱씹는다. 그의 삶에 대한 기억을 반추하며 살아가는 명혜가 친구의 책을 감춰 자신이 일등이 되려고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제자 ‘지수’에게 들려주려는 말은 사실 명혜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지수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오래 기억하며 반추하라고 말하려는 것처럼, 명혜 역시 ‘장갑’으로 상징되는 혁수와의 기억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슴속에 낱짝으로 끼워 두었”[23]음을, 이를 통해 영원히 그의 삶을 기억할 것을 명시한다.

---

22 “서울에 가면 맨 먼저 지수에게 편지를 쓰리라. 지수의 마음을 선생님은 안다고. 그렇지만 일등은 정희의 책을 감춰서 되는 게 아니라, 정희보다 십 분 늦게 자고 십 분 일찍 일어나 셈을 하고 식물 이름을 암기해야 되는 거라고. 그애가 내 말을 알아듣는다면 이렇게도 말하리라. **전혀 없었던 일로 하지 말고** 가슴 갈피에 끼워 두었다가 오래오래 반추해 보라고.” (신경숙, 「겨울 우화」, 『겨울 우화』, 고려원, 1990, 62쪽. 강조는 인용자.)

23 위의 글, 63쪽.

그러나 「겨울 우화」를 통해 실패한 운동권 대학생을 문학의 무대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의도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시작된 '운동권 세대'의 후일담 소설, 즉 운동에 실패한 운동권 자신의 우울한 내면을 고백하기 위한 소설 창작과는 다른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24] 이는 이후 신경숙의 시선이 실패한 운동권의 내면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1980년대의 변혁운동과는 무관한 이유로 죽음을 선택한, 그래서 현실에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지워진 '이숙'의 죽음으로 옮겨 간다는 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 신경숙이 '이숙'이라는 이름을 붙여 반복적으로 애도하는 인물은 신경숙이 대학 시절 만났던 친구를 모델로 한 것이다. 대학 스승인 오규원의 권유로 신경숙에게 먼저 말을 걸어온 친구가 거식증을 앓던 끝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음을 뒤늦게야 알게 된 것은 작가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고,[25] 이후 그녀의 일대기는 『겨울 우화』 뿐만 아니라 『풍금이 있는 자리』에서도 조금씩 내용을 바꾸어 '이숙'의 서사로 반복된다.

이숙에 대한 기억은 『겨울 우화』에 수록된 단편 「밤길」을 통해 먼저 시작된다. 「밤길」에서 이숙의 죽음으로 친구들과 모이게 된 '나'는 이한열 열사의 죽음에는 크게 슬퍼하면서 정작 친구의 고통과 죽음에는 무관심했던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낀다.

6월이구나, 나는 절망했다. 이숙이 이 지상에서 사라져갈 때 우리는 뭘

24 실패한 운동권 대학생의 우울한 내면 고백의 양상은 6월 항쟁의 '실패' 이후 김영현과 김남일과 같은 운동권 출신 작가들이 발표한 일련의 작품들에서 빈번히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성과를 참조할 수 있다. 조윤정, 「1980년대 운동권에 대한 기억과 진보의 감성-김영현, 박일문, 공지영의 9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67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5; 배하은, 앞의 글, 2016; 이소영 외, 「1990년대 문학과 망각된 정동-1991년 5월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김영현의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74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20; 문예지, 「재현 주체의 위기와 자기의 발생: 1990년 김영현 논쟁 및 소설 재론」, 『민족문학사연구』 제82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23; 졸고, 앞의 글, 2024 등.

25 관련 내용은 신경숙, 「꿈결같이」, 『문학을 꿈꾸는 시절』, 도서출판 세계사, 2002. 및 신경숙, 「내가 만난 죽음」, 『아름다운 그늘』, 문학동네, 2004, 68-71쪽 참조. 이 일화는 이후 『풍금이 있던 자리』에 수록된 단편 「멀리, 끝없는 길 위에」를 통해 소설로 재편되기도 한다.

했던가? 우리는 신새벽에 최루탄 파편에 죽은 유난히 눈썹이 검었던 한 청년의 장례식장엘 택시를 타고 갔고, 그의 영전에 분향을 했다. 이숙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쓰러져 갈 때 우리는, 그 장례식 행렬을 따라 시청엘 갔었다. 그때 Y는 뒤늦게 아현동에서부터 합류해 우리를 찾았노라 해서 우리는 웃었었다. 그러나 그게 웃을 일이던가? 우리는 어쨌든 백만도 넘는다는 그 인파 속에서도 서로를 찾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숙에게 그런 기회를 줘봤는가? 우리는 이숙을 그 산 밑동네에, 집도 세 채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곳에 혼자 두었다. 그곳에서 이숙이 나뭇잎처럼 끊임없이 바스락대며 우리를 불렀어도 우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그때에 우리는 어떤 열기에 설레이며 혼자 있는 그녀를 까마득히 잊고, 인파 속에 섞여 터질 듯한 갈망으로 손을 쳐들었으며, 쫓겨 다녔으며, 핸드백과 신발을 잃었으며, 지하도에 쓰러졌으며, 다시 일어나 어두워지고 난 후까지 공습중인 것만 같은 거리를 헤맸다.[26]

이숙의 죽음을 계기로 '나'가 느끼는 죄책감은 이한열 열사로 대표되는 역사를 바꾸기 위한 투사의 삶이 '이숙'과 같은 평범한 이들의 삶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한 의구심과 맞닿아있다. 이와 대비하여 '나'가 이숙의 소식을 듣고 그녀의 집으로 향하던 기차에서 처음 만난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을 묵묵히 들어주는 '나'의 모습은 그동안 "말을 너무 참고 살았던"[27] 이숙을 향한 죄책감을 투영하는 동시에 '열사'의 서사와는 달리 문학이 외면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서사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다.

---

26 신경숙, 「밤길」, 『겨울 우화』, 101쪽.

27 "「이숙이 어머니 말로는 서울 갔다 와서 보름이 넘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았대. 그애가 방에서 하는 일이란 우리들 편지를 방 벽에 붙여 놓고 읽는 일뿐이었대……점점 난폭해지더라는 거야……내던지고 찢고 울부짖고……장롱이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었을 지경이었다고……**나는 말을 너무 참고 살았으니까 이젠 말을 다 해야겠다고** 어느 날은 온종일 중얼거리고……날마다 유서를 썼대……어머니가 우리들 이름을 쭈루루 꿰더라구……날마다……날마다 치악산을 향해 우리를 불렀다는 거야……S 니 편지는 이숙이 어머니도 거의 외우고 있었어.」" (위의 글, 103쪽, 강조는 인용자.)

훗날에……먼 훗날에……더 먼 훗날에라도 잊지 못하고 기어이 내가 기억해 내고 말 것 같은 미소를 여자가 짓는다.

「……자꾸만……왜 얘기가 하고 싶을까?……들어주겠어요?」

「……그럼요.」

음정을 잘못 고른 하모니카 소리처럼 내 목소리가 떨린다. 턱없이 여자를 향해 열려지는 마음을 감추려고 애써 귀찮은 표정을 지어 보인다.[28]

이는 작가가 1980년대 한국 리얼리즘 문학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당대의 삶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대상임을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천정환은 한국의 1980년대가 386세대, 그 가운데 학생운동에 가담했던 엘리트 대학생 출신들에 의해 '민주화운동'이라는 기억을 중핵으로 삼아 역사화되는 과정에서 운동 공동체 내부에 존재했던 다양한 주체들이 지워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한다.[29] 그러나 이 과정에서 더 큰 소외를 겪는 것은 당시 민주화운동 공동체의 바깥에 놓여있던 존재들이다. 이들을 1980년대라는 역사의 무대로 소환하는 신경숙의 작업은 단순히 변혁운동과 대비되는 "일상적 삶에 대한 긍정"[30]의 의미를 넘어, 이들의 존재를 '운동의 시대'를 구성하는 데 있어 배제되어서는 안 될 역사적 존재로서 포섭하는 적극적 행위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이숙의 죽음'에 대한 서사는 이후 『풍금이 있던 자리』에 수록된 단편 「직녀들」과 「멀리, 끝없는 길 위에」을 통해 반복된다. 「밤길」에서는 이숙의 죽음을 뒤늦게 알게 된 '나'가 충동적으로 J시로 향하는 열차를 탔다면, 「직녀들」은 이숙의 죽음이라는 공통 사건을 함께 체험한 여고 동창생인 P, C, O, S가 모여 이숙을 추억하던 끝에 그녀와 함께 간 바다로 즉흥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로 변주된다. 이숙을 기억하기 위해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왔음에도 이숙에 대한 그들의 애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각자의 삶을 '버텨내느라' 이숙을 잊고 살았다는 사

28 위의 글, 97-98쪽.

29 천정환, 「1980년대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세대 기억'의 정치」, 『대중서사연구』 제2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4, 191-192쪽.

30 황종연, 「현대적 실존과의 접촉」, 앞의 책, 141쪽.

실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바다에서 각자 그녀와 얽힌 기억을 떠올리지만,[31] 그녀를 편안한 마음으로 추억할 수는 없다. 이숙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오히려 친구들 간의 싸움으로 번지는 장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우리 저녁은 뭘로 먹지. 상점이 다 철시한 것 같애. 배들 고프지 않니? 그땐 이숙이가 버너에서부터 마늘 찧은 것까지 다 챙겨와서 우리 그때, 나흘 동안 도시에 있을 때보다 더 맛있게 밥을 지어 먹었는데.
>
> 나흘이 아니야. 닷새야.
>
> 아니야, 나흘이야.
>
> 닷새라니깐.
>
> 나흘이라구!
>
> 강아지를 사랑하는 S와, 담배 피우는 C가 티격태격하는데, 말없이 마루에 앉아만 있던 O가, 왈칵 화를 냈다.
>
> 나흘이건 닷새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다 지나간 일인데. 나흘이면 이숙이가 살아나고, 닷새면 이숙이가 다시 우리에게 그때처럼 밥을 해줄 수 있니?[32]

「직녀들」이 「밤길」의 여행 서사를 변주하여 1990년대에도 여전히 이숙의 죽음을 온전히 애도하기 어려운 인물들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숙 연작'의 마지막 작품에 해당하는 「멀리, 끝없는 길 위에」는 「밤길」과 「직녀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이숙의 1980년대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멀리, 끝없는 길 위에」가 「밤길」의 이야기를 서사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밤길」에서 제시된 이숙의 일화가 「멀리, 끝없는 길 위에」에서 똑같이 재현되는 장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밤길」에서 이

31 "(…)삶에 의욕을 잃은 네 여자들을 베틀에 앉아 하염없이 베를 짜야 하는 직녀로 보았어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여자들이므로** 먼저 이름을 지웠고, 대신에 기호로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불러주었습니다."(김윤식·신경숙, 앞의 글, 330-331쪽. 강조는 인용자.)

32 신경숙, 「직녀들」, 『풍금이 있던 자리』, 문학과지성사, 2003, 56쪽.

숙이 나에게 했던 'N섬과 P신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를 제대로 귀담아듣지 않고 그녀를 귀찮아했던 나의 모습이나, 그녀와 산책했던 능에서의 상황은 「멀리, 끝없는 길 위에」 곳곳에서 거의 그대로 옮겨지고 있다. 아래 인용에서 강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밤길」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때를 지독한 현재처럼 기억한다, 그때를 이렇게 써놓았다……

'그때……지금 마지막이라고 해야 하는 그때 이숙이 왔었다. 마지막인지 전혀 몰랐던 그때, 나는 마감에 쫓겨가며 원고를 작성하는 중이었다. 불쑥 사무실 앞에서 전화를 걸어온 그녀를 데리고, 이미 오후가 기울고 있는데도 점심도 먹지 않은 것 같은 그녀를 데리고, 어쩌면 그날 내내 아니 그전날, 또 그전날부터 음식이라곤 입에 댄 것 같지 않은 그녀를 데리고 잡지사 앞 식당엘 갔었다.

여름이 되면 N섬에 갈까 해…… 너도 기억나지 P신부님…… 그 신부님이 N섬 신설 성당으로 가셨대. 그래서 편지를 드렸는데 답장이 왔어. 아름답지는 않고 가파른 곳이래…… 외져서 유아들 교육을 맡을 만한 마땅한 곳이 없대…… 여름 되면 그 애들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열겠대. 별일 없으면 와서 여름 나랬어. 애들과 함께.

수줍고 말이 많지 않던 그녀가 그렇게 많은 말을 들뜬 듯 쏟아놓는데도 내 마음은 온통 마감 원고에 가 있었다.

생각해 봐 얼마나 즐겁겠니?

그녀는 N섬에 대해서, P신부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싶어했지만 나는 그 말들을 모두 들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나와 함께 조금 걷고 싶다고 했다.

원고를 마저 써야 해. 시간이 없어.

……응.

그녀가 떨어뜨린 젓가락을 줍기 위해 몸을 굽혔다가 그녀의 퉁퉁 부어오른 발을 봤다. 스타킹은 줄이 나가고…… 체크 무늬 스커트 사이로

벌겋게 소름이 돋은 그녀의 발을 보지 않았으면, 난 그녀를 그대로 보냈으리라. 음식값을 치르고 나는 그녀와 함께 잡지사 건너편 능으로 갔다.

잠깐밖에 안 돼.

그렇게 말했던 것도 같다. 내가 그때 그렇게 발음하지 않았기를 지금 나는 원한다. 그랬다면 이숙에게 외로움을 더 가중시켰을 테니, 그리고 정말 그리고 잠깐밖에 안 된다는 것이 영원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버렸으니.'

……P신부……

그녀는 그때 내게 '너도 기억하지 P신부' 했지만, 나는 지금 P신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33]

흥미로운 것은 「멀리, 끝없는 길 위에」가 「밤길」의 중심 서사를 다시 쓰는 과정에서 앞서 살핀 「직녀들」의 이야기를 더하여 이숙에 대한 애도의 글쓰기를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녀들」에서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34] 타클라마칸 사막에 왜 가는지를 아느냐고 친구들에게 물었으나 '운전대를 잡고 있는 O'에 의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저기에 대한 말을 하는 P'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무서워 울면서도 가야만 하는"[35] 고산에 관한 이야기로 바뀌어 등장한다. 친구의 이 이야기는 기억되지 못한 이숙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고 소설로 쓴다는 것의 의미를 고민하는 나에게 이숙에 관한 글쓰기를 끝까지 시도할 것을 주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나한테 해?

모르겠니?

33 신경숙, 「멀리, 끝없는 길 위에」, 『풍금이 있던 자리』, 274-276쪽, 강조는 인용자. 인용 중 강조하지 않은 부분은 「밤길」의 90-91쪽에 수록된 내용과 동일하다.

34 신경숙, 「직녀들」, 위의 책, 47쪽.

35 신경숙, 「멀리, 끝없는 길 위에」, 위의 책, 260쪽.

……

엄살 그만 부리라는 얘기야.

엄살?

그게 아니면 지금 뭐야? 누구에게나 무서워 울면서도 가야만 하는 길이 있는 거 아니겠어, 메스너한테 산 같은 게 누구한테나 한 가지씩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 말이야.[36]

「멀리, 끝없는 길 위에」의 결말부에 이르러 '나'는 1980년대에는 이한열 열사의 죽음에 가려졌던 이숙의 삶과 죽음이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이 실패로 끝나버린 1990년대에도 여전히 기억되기 어려운 평범하고 희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37]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가가 이러한 다시 쓰기의 과정을 거친 뒤 비로소 어떠한 시대이든 역사의 주역일 수 없었기에 기억되지 못하고 사라진 이들을 재현하는 것의 의미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시인의 묘지를 바라보며 이숙의 삶을 글로써 풍요롭게 복각하겠다는 자신의 욕망을 정면으로 마주한 '나'가 결국 이숙이라는 인물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그녀에 대한 완전한 애도로 나아가는 대목은 이를 잘 보여준다.

……너를, 부채감 없이 어찌 돌이켜볼 수 있겠니……

늘 얼굴이 아플 거야. 소멸의 그림자, 거식과 우울증에 빠진 네 마음 붙임, 하지만, 잘 가거라, 나의 벗. 오랫동안 이 순간이 오길 기다렸어. 내 꿈속에도 더 드나들지 마, 물로 흘러간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지도 말어, 어깨를 펴야지, 떠올라야지, 무엇으로 다시 생을 가져야지, 무, 무섭겠지만 소, 솟아올라야지……[38]

---

36 위의 글, 같은 쪽.

37 기형도를 모델로 한 것으로 추측되는 '시인'의 묘지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그는 없지만, 그는 여기 있지 않은가. 그의 묘가 여기 있고, 남은 사람들이 원고를 모아 만들어낸 시집이 있고, 그의 환생이라고 믿고 있는 이 아이가 있고, 하지만 그녀는?" (신경숙, 「멀리, 끝없는 길 위에」, 위의 책, 270쪽.)

38 위의 글, 295쪽.

이처럼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반복과 변주의 글쓰기를 거듭하며 1980년대 공적 역사 이면에 놓인 삶을 복원하려 애쓴 결과 '이숙'에 대한 애도에 도달한 신경숙은 1990년대 중반, 『외딴방』을 통해 또 다른 기억의 고쳐쓰기에 도전한다. '이숙 연작'이 단편소설의 서사적 반복과 변주를 통해 이숙의 삶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문학이 외면했던 1980년대의 개인을 복원하였다면, 『외딴방』은 단편소설이었던 「외딴방」을 장편소설로 새롭게 구성하며 그동안 문학이 주목하지 못한 역사의 이면들에 대한 다시 쓰기를 시도한다.

3 「외딴방」 새로 쓰기와 재구성되는 1980년대 -「외딴방」에서 『외딴방』으로

현실 변혁을 위한 투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채 한국 사회가 급격히 1990년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는 좌절과 공허감이 '후일담 소설'이라는 형태로 앞다투어 형상화된 후, 후일담 소설들이 주목하지 못한 1980년대의 목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의 386세대 여성 작가들이었다.[39] 이들의 시도는 당대 운동권들의 가부장적 성격을 비판하고, 운동권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에게 가해졌던 젠더 폭력에 대한 애도를 1980년대 국가폭력에 대한 애도와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40] 그러나 386세대 여성 작가들 역시 대부분 운동권 '대학생'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이 회고하는 1980년대의

39 졸고, 앞의 글, 82-83쪽.

40 대표적 사례로 1990년대에 발표된 최윤과 공지영, 김인숙과 공선옥과 같은 여성 작가들의 후일담 소설을 꼽을 수 있다. 관련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참조할 수 있다. 김은하, 「386세대 여성 후일담과 성/속의 통과제의-공지영과 김인숙의 소설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김은하, 「살아남은 자의 죄책과 애도의 글쓰기: 공지영의 8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이채원, 「후일담 소설의 젠더 지평」, 『여성문학연구』 제4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이혜령, 앞의 글, 2015; 소영현, 「애도하는 여자들-페미니즘 서사의 역사 다시 쓰기」, 『현대문학의 연구』 제74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1; 조연정, 「후일담과 여성-1990년대 젠더화된 문단과 최윤의 소설」, 『대중서사연구』 제29권, 대중서사학회, 2023; 졸고, 위의 글, 2024. 등.

기억이란 필연적으로 일종의 공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경숙은 운동권 대학생이 아닌 여성 노동자를 화자로 삼은 장편소설 『외딴방』을 통해 후일담 소설들이 비워두었던 1980년대의 이면을 본격적으로 형상화한다.

기억할 것은, 장편소설 『외딴방』 역시 작가가 실제로 마주해야 했던 죽음의 기억에 대한 다시 쓰기의 일환으로 시도된 작품이라는 점이다. 신경숙은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가깝게 지냈던 언니의 죽음을 먼저 『겨울 우화』에 수록된 단편소설 「외딴방」을 통해 기록했고,[41] 이것을 1990년대에 이르러 장편소설 『외딴방』으로 고쳐 쓴다. 작가 스스로가 「외딴방」의 내용을 바탕으로 『외딴방』을 다시 쓰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외딴방』의 곳곳에서 제시된다.

> **나는 육 년 전에 이렇게 써놓고 있다.** 수원행 전철이 통과하는 전철역이 그 동네의 시작이다, 고. 전철역 앞에서부터 길은 세 갈래로 나뉜다, 고. 길은 세 갈래였어도 어느 길로 접어드나 공단과 연결되었다, 고. (…) 나는 다시 쓰고 있다.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삼 미터 앞, 위에서 보면 시멘트로 덮인 마당 중앙에 수돗가가 있었다, 고.[42]

> **나는 다시 쓰고 있다.**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삼 미터 앞, 위에서 보면 시멘트로 덮인 마당 중앙에 수돗가가 있었다, 고. 계단 왼편엔 황색 나무문 두 개. 그 나무문의 유리창엔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다, 고. (…) 계단 오른편에서 두 번째 문…… 희재언니는 거기 혼자 살았다, 고.[43]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외딴방」을 『외딴방』으로 새롭게 다시 쓰는 과정이 이전처럼 한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억만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때 '우리들 이야기는 쓰지 않느냐'는 고교 동창 '하계숙'의 질문은 나에게 『외딴방』

41 「외딴방」의 내용이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반영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신경숙, 「내가 만난 죽음」, 앞의 책, 66-68쪽 참조.

42 신경숙, 『외딴방』, 문학동네, 1999, 47쪽. 강조는 인용자.

43 위의 책, 47-48쪽. 강조는 인용자.

을 새로 쓰는 작업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 그러나, 하계숙 얘기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들 얘기를 쓰지 않았다. 딱 한번 시도해본 적은 있었다. 그 글은 하계숙이 읽지 못했다는 첫 소설집 마지막에 실려 있다. 하지만 그녀, 하계숙이 그 글을 읽는다고 해도 그녀는 그 글이 그 시절 우리들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정직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껏 시치미를 떼었으니까. 내 젊음에 대해, 나라는 존재에 대해, 자신은 없고 생생한 아픔만이 승해서 범한 건너뜀. 이건 소설이다, 하면서도 나는 죽을 것같이 가슴이 아팠다. 그 가슴 아픔을 숨기려고 나는 서둘러 십 년 후 이러이러했다고, 끝을 내놓았다. 정면으로 쳐다볼 자신이 없어 얼른 뚜껑을 닫아버리며 나는 느꼈다. 내게는 그때가 지나간 시간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낙타의 혹처럼 나는 내 등에 그 시간들을 짊어지고 있음을, 오래도록, 어쩌면 나, 여기 머무는 동안 내내 그 시간들은 나의 현재일 것임을.[44]

희재언니라는 개인의 삶에만 초점을 두었던 1980년대의 단편 「외딴방」의 글쓰기가 이숙에 대한 글쓰기와 닮아있다면, 1990년대의 신경숙은 희재언니의 기억이 "기어이 튀어나오"[45]도록 그녀의 삶과 긴밀히 맞닿아있었던 '우리들'의 다양한 삶의 양태를 문학적으로 함께 형상화하는 장편소설 『외딴방』 쓰기로 나아간다. 이때 소환되는 삶의 모습들은 염무웅이 「외딴방」 다시 쓰기의 의의로 지적한 것처럼 "78년부터 81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정치적 · 사회적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46]에 유의미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외딴방」을 장편소설 『외딴방』으로 고쳐 쓰며 희재언니의 기억을 재응시하는 과정에서 신경숙이 여성 노동자의 시선으로 포착하는 당대 여성 노동자들의 삶이 그동안 '노동운동사', 혹

44 위의 책, 71쪽.
45 위의 책, 48쪽.
46 염무웅, 「글쓰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창작과비평』 1995년 겨울호, 창작과비평사, 281쪽.

은 '노동문학'에는 포섭되지 못한 당대 노동사의 이면을 함께 비춘다는 점이다.

하계숙의 질책을 계기로 시작된 회고 과정에서 화자가 주목하는 것은 1980년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역군"[47]으로서의 노동자도 아니며, 당대의 "풍속화 속에서 동적으로 그려질"[48] 인물들, 즉 노조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도 아니다. 오히려 『외딴방』이 1980년대의 기억에서 소환하는 것은 억압 대상이자 투쟁의 주체로 대표되는 여공이라는 상징에 포섭될 수 없었기에 재현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사라져야 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삶이다.

나는 '생활'과 '꿈'을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 투쟁을 외면했기에 문학이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여성 노동자들의 삶의 단면들을 재현하는 것에 글쓰기의 초점을 둔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투쟁에 몸담았던 이들 대신 평범한 이들의 삶을 부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종의 공식화가 진행되고 있는 '1980년대의 투쟁사'를 좀 더 다양하고 세밀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외딴방』이 'YH사건'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1979년 YH무역에서 여공들이 벌인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김경숙의 죽음을 다루는 신문 기사가 '오빠'가 시대를 기억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면, 나는 신문 기사는 다루지 않는, 함께 일하던 어린 여공 김경숙의 죽음을 자신의 일처럼 슬퍼한, 귀향조치 이후 더 이상 행방을 알 수 없는 '김삼옥'을 통해 YH사

47 "강사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산업역군이라는 말을 쓴다. 납땜질을 실습시키면서도 산업역군으로서, 라고 말한다." (신경숙, 『외딴방』, 38쪽.)

48 『외딴방』에서 이는 '유채옥'이라는 인물로 나타나지만, 유채옥의 삶은 『외딴방』의 서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유채옥. **준비반 조장인 그녀는 풍속화 속에서 동적으로 그려질 것이다.** 강한 필치로. 어느 날 C라인의 미스 최는 출근을 저지당한다. 그 전날 잔업을 하지 않고 갔다는 게 저지당하는 이유다. 생산과장은 미스 최에게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한다. 유채옥은 잔업을 하지 않았다고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C라인의 미스 최를 옹호하고 나선다. 작업과 특근은 정상근무 외의 시간이다. 그래서 수당이 있는 거 아니냐. 종업원들은 개인사정에 따라 잔업을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랬다고 사직서를 쓰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 유채옥은 계속 외친다. "우리의 권익을 위해 노동법에 따라 결성한 노조다. 회사에서 아무리 방해를 해도 우리는 결성식을 갖겠다.") (위의 책, 76-77쪽, 강조는 인용자.)

건을 기억한다.

"김삼옥 말야."

나는 물을 마시다 말고 미서를 빤히 본다.

"행방불명이래."

"무슨 소리야?"

"여름방학 때 굉장했던 모양이더라. 신민당사까지 김삼옥도 갔었대. 국회의원이며 기자들도 피투성이가 된 판에 농성하는 공원들이 성했겠니."

"어땠는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경숙이가 죽었다고 아무 데서나 매일 울었다는구나."

(…)

"김삼옥 동생이 서울에 와서 누나를 찾으러 다니나 봐. 귀향조치가 돼 가지고 집으로 와서 매일 다락에 쪼그리고 앉아 있더니 언제 보니까 사라지고 없드래."

"어디로 갔을까?"

(…)

그냥 지나칠 만한 어느 부분은 너무 세밀하게 기억이 나는가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할 부분은 황폐한 거리처럼 텅 비어 있다. 이후 김삼옥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리 애써 그 이후의 김삼옥을 찾아내려 해도 어디에도 그녀는 없다.[49]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에야 나는 희재언니에 대한 기억에 다시 도달한다. 여기서 다시 마주하게 된 희재언니의 기억이란 이미 「외딴방」에서 펼쳐놓은 것을 다시 쓴, '1980년대의 그늘'에 자리한 매우 사소하고 희미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외딴방」을 『외딴방』으로 다시 쓰며 이 희미한 기억을 문학으로 재

49 위의 책, 191-193쪽.

소환하는 경험은 나에게 문학이란 무엇인지를 일깨우는 중요한 행위이다. 희재 언니에 대한 글쓰기 이후 나에게 문학이란 "끝끝내 숨어버리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역사의 흐름에서 숨겨져 있던 이들의 "의젓한 자리를 세상에 새로이 낳아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 내가 애착하는 것들은 **끝끝내 숨어버리는 것들**이다. 쉽게 끌려나오지 않고 숨어버리는 것들의 진실이 언젠가는 삶을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심미안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든 문학은 그 진실의 고귀함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50]

> 이름도 없이, 물질적인 풍요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이, 그러나 열 손가락을 움직여 끊임없이 물질을 만들어내야 했던 그들을 나는 이제야 내 친구들이라고 부른다. 그들이 나의 내부에 퍼뜨린 사회적 의지를 잊지 않으리. 나의 본질을 낳아준 어머니와 같이, 익명의 그들이 나의 내부의 한 켠을 낳아주었음을…… 그래서 나 또한 나의 말을 통하여 **그들의 의젓한 자리를 세상에 새로이 낳아주어야 함을**…… 1995년 9월 10일에.[51]

이처럼 역사 속에서 숨어버린 이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역사가 숨겨버린 이들의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라는 깨달음은 『외딴방』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등단작부터 꾸준히 글쓰기의 의미를 탐색하던 신경숙이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발견한 해답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외딴방』만이 아니라 『겨울 우화』와 『풍금이 있던 자리』를 거쳐 90년대 중반의 『외딴방』에 이르러 작가가 내린 결론이라는 점에서, 신경숙이 『외딴방』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과정은 1990년대의 문학주의적 관점이나, "80년대적인 것과 90년대적인 것의 화해와 타협의 드라마"[52]라는 관점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외딴방』의

50 위의 책, 412-413쪽. 강조는 인용자.

51 위의 책, 419쪽. 강조는 인용자.

52 김영찬, 「'90년대'는 없다: 하나의 시론, '1990년대'를 읽는 코드」, 『한국학논집』 제59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5, 24쪽.

성취는 80년대적인 것과 90년대적인 것의 구분을 넘어, 약자들을 위해 이루어졌던 투쟁 역시 약자를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마는 모순적 상황을 문학을 통해 진단하려 했던 작가의 치열한 고민에서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결론

한국 문학사에서 1990년대는 1980년대의 리얼리즘 문학과는 다른 문학의 '새로움'을 발굴하던 시대이자, 동시에 1980년대에 발생한 국가 폭력과 죽음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문학적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대이기도 했다. 1990년대 한국문학의 시작과 성장이 이러한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이행하는 시기의 복잡다단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1990년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품 연구 역시 이러한 사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신경숙 문학이 1980년대와는 다른 1990년대 한국문학의 대표작으로 독해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신경숙 초기작의 문제의식을 좀 더 세밀히 살피고자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경숙 문학에서 1990년대적 특성을 발견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던 '내면성'이라는 키워드가 신경숙 초기작의 문제의식을 분절적으로 파악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파악하고, 1980년대를 운동권 출신 대학생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의 시대로 바라보는 시각의 사각지대를 성찰하고자 했던 초반의 문제의식이 1985년 발표된 등단작부터 1990년대 중반의 작품에 걸쳐 연결 및 확장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1980년대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1990년대의 문학은 주로 학생운동 경험을 가진 386세대 작가들의 '후일담 문학'의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발표된 신경숙의 작품들은 후일담 문학이 다루지 않았거나 다루지 못한 역사적 '공백'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삶을 기억하는 데에서 문학의 의의와 가치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후일담 문학과 구분된다.

'문학은 1980년대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관한 신경숙의 문제의식은 등단작 「겨울 우화」를 통해 투쟁을 포기하고 시대의 뒤꼍으로 사라진 실패한 운동권을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 현실 변혁이라는 문제에 밀려 쓸쓸

한 죽음을 맞이한 친구 '이숙'으로, 그리고 한국 노동사는 기억하지 않는 '희재언니'에 대한 기억이라는 화두로 옮겨간다. '투쟁하지 않은 1980년대의 삶과 죽음은 무의미한 것인가'로 요약될 수 있는 주제 의식은 이숙을 기억하는 단편소설의 반복적 쓰기와 장편소설 『외딴방』 다시 쓰기를 통해 확장된다. 『겨울 우화』에 수록된 「밤길」이 『풍금이 있던 자리』의 「직녀들」과 「멀리, 끝없는 길 위에」를 통해 반복과 변주를 오가는 양상은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작가는 공적 역사로 기억되지 못하는 삶을 끊임없이 문학의 시야 안으로 밀어 올리며 소외되는 이들을 위해 투쟁했던 1980년대의 변혁운동이 오히려 또 다른 소외와 누락을 낳는 모순적 상황을 지적한다. 한편, 단편소설 「외딴방」을 『외딴방』으로 다시 쓰는 과정은 「외딴방」에서 다루었던 희재언니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른바 '학출'들의 시각에서는 포착되기 어려웠던 노동자들의 삶을 소환하고, 민주화운동이라는 시각이 1980년대의 역사로 다루지 못했던 삶을 1980년대의 무대 위로 호출한다. 이러한 시도는 '산업역군'이나 혹은 '노동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조명되지 못했던 노동자들 역시 1980년대라는 시대의 중요한 일원이었음을 일깨우며, 이 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기 쉬운 미약한 삶들을 기억하고 어루만지는 것이 문학이 가지는 근본적인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외딴방』이 도달한 결론인 동시에, 신경숙이 등단작부터 꾸준히 천착해 왔던 글쓰기의 의미, 즉 문학의 의미에 대한 나름의 결론이다.

지금까지 살핀 신경숙의 초기 문학세계는 1980년대의 리얼리즘 문학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는 1990년대의 새로운 문학으로 일컬어졌던 신경숙 문학의 특징들이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서 길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1980년대를 기억한다는 점에서 당대 후일담 문학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후일담 문학과는 다른 차원에서 1980년대를 문학적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신경숙의 초기작은 후일담 문학과 함께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문학의 의미를 양방향에서 풍부하게 성찰하도록 하는 독특한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신경숙,『겨울 우화』, 고려원, 1990.

_____,『외딴방』, 문학동네, 1999.

_____,『풍금이 있던 자리』, 문학과지성사, 2003.

_____,『아름다운 그늘』, 문학동네, 2004.

신경숙 외,『문학을 꿈꾸는 시절』, 도서출판 세계사, 2002.

단행본

김기택 외,『21세기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9, 543쪽.

황종연,『비루한 것의 카니발』, 문학동네, 2001, 140-142쪽.

황종연 외,『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민음사, 1999, 39쪽.

논문

김영찬,「'90년대'는 없다: 하나의 시론, '1990년대'를 읽는 코드」,『한국학논집』 제59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5, 7-27쪽.

김윤식·신경숙,「不在를 견디는 독특한 문체와 미학-김윤식·신경숙 대담」,『문예중앙』 1993년 봄호, 중앙일보사, 328-336쪽.

김은하,「386세대 여성 후일담과 성/속의 통과제의-공지영과 김인숙의 소설을 대상으로」,『여성문학연구』 제2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43-78쪽.

_____,「살아남은 자의 죄책과 애도의 글쓰기: 공지영의 8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여성문학연구』 제3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131-155쪽.

류보선,「그리움과 끈끈한 생명력의 넓이와 깊이」,『창작과비평』 1993년 여름호, 창작과비평사, 386-395쪽.

문예지,「재현 주체의 위기와 자기의 발생: 1990년 김영현 논쟁 및 소설 재론」,『민족문학사연구』 제82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23, 61-94쪽.

박해현,「우물 속의 하얀 새」,『문학동네』 1996년 봄호, 문학동네, 98-105쪽.

박혜경,「사인화(私人化)된 세계 속에서 여성의 자기 정체성 찾기」,『문학동네』

1995년 가을호, 문학동네, 20-40쪽.
배하은, 「만들어진 내면성: 김영현과 장정일의 소설을 통해 본 1990년대 초 문학의 내면성 구성과 전복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0집, 한국현대문학회, 2016, 547-585쪽.
백낙청, 「『외딴방』이 묻는 것과 이룬 것」, 『창작과비평』 1997년 가을호, 창작과비평사, 230-250쪽.
서영인, 「1990년대 문학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대중서사연구』 제46호, 대중서사학회, 2018, 9-40쪽.
서영채, 「단편소설과 상품미학」, 『상상』 1993년 가을호, 도서출판 살림, 18-34쪽.
_____, 「냉소주의, 죽음, 매저키즘: 90년대 소설에 대한 한 성찰-신경숙, 윤대녕, 장정일, 은희경의 소설을 중심으로」, 『문학동네』 1999년 겨울호, 문학동네, 406-445쪽.
소영현, 「애도하는 여자들-페미니즘 서사의 역사 다시 쓰기」, 『현대문학의 연구』 제74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1, 557-589쪽.
염무웅, 「글쓰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창작과비평』 1995년 겨울호, 창작과비평사, 278-291쪽.
이소영 외, 「1990년대 문학과 망각된 정동-1991년 5월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김영현의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74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20, 451-489쪽.
이채원, 「후일담 소설의 젠더 지평」, 『여성문학연구』 제4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191-226쪽.
이혜령, 「포스트 80년대, 비범한 날들의 기억-신경숙과 김인숙 소설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제39호, 반교어문학회, 2015, 515-544쪽.
임희현, 「1990년대 한국 후일담 문학과 '애도'의 의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4.
조연정, 「'문학주의'의 자기동일성-1990년대 『문학동네』의 비평 담론」, 『상허학보』 제53권, 상허학회, 2018, 9-46쪽.
_____, 「후일담과 여성-1990년대 젠더화된 문단과 최윤의 소설」, 『대중서사연

구』 제29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23, 177-215쪽.
조윤정, 「1980년대 운동권에 대한 기억과 진보의 감성-김영현, 박일문, 공지영의 9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67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5, 277-304쪽.
천정환, 「1980년대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세대 기억'의 정치」, 『대중서사연구』 제20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4, 187-218쪽.
최가은, 「'90년대'와 '여성문학특집'-『문학동네』 1995년 여성문학특집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75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21, 61-94쪽.
최원식, 「제11회 만해문학상 발표」, 『창작과비평』 1996년 겨울호, 창작과비평사, 406-411쪽.
한경희, 「비극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는 조건-1990년대 여성문학의 제도 문학 편입 맥락과 그 과정」, 『현대소설연구』 제8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39-85쪽.
_____, 「여성과 경험의 괴리-1990년대 문학장에서 '여성적 글쓰기' 비평 담론의 형성 및 전개」, 『구보학보』 제35호, 구보학회, 2023, 73-112쪽.
황종연, 「개인 주체로의 방법적 귀환」, 『문학과사회』 1993년 겨울호, 문학과지성사, 1305-1328쪽.

기타 자료

이광호, 「문학의 복권과 새로운 화법」, ARKO 『월간 문화예술』 제168호, 1993, https://www.arko.or.kr/zine/artspaper93_07/index9307.htm (접속일: 2025.04.10.)

Abstract

Lives Excluded, Rewriting the 1980s
-Focusing on the aspect of 'rewriting' that appears in Shin Kyung-sook's early works

LIM, Heeh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ritically investigates the discursive framework in which Shin Kyung-sook's literature has been positioned as representative of 1990s Korean literature,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conceptual lens of "inner nature," and offer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her early thematic concerns, which the conventional "1990s" framework has failed to fully address. This study argues that the sense of critical awareness found in Shin Kyung-sook's early works is closely connected to, and further developed through, the theme of how to remember the literary era of the 1980s by means of "rewriting." From this perspective, her early literary works show that her so-called "1990s literature" cannot be understood solely as a product of that decade. The characteristics attributed to her writing are instead the result of a dialectical engagement between the 1980s and the 1990s. In this way, Shin Kyung-sook's early works—when considered in conjunction with her later literature—offer a unique literary achievement, reflecting deeply on the meanings of Korean literature in both the 1980s and the 1990s.

Key words: Shin Kyung-sook, 1980s, 1990s, Rewriting, Memory, *Winter Fable*, *The Place Where the Harmonium Was*, *The Remote Room*

논문제출 / 2025.02.28.
논문접수 / 2025.03.16.
게재확정 / 2025.04.04.